

후국일

주간지

입문 - 1주차

오 르 비
후 국 일
김 민 수

후국일(김민수)

일관된 기준. 그리고 체화.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약력

現)대치 오르비 국어영역 강사

現)오르비 클래스 국어영역 강사

前)비원에듀 그룹 국어과 대표강사

前)라벤하임 국어 논술학원 팀장



상담&질문
연락처 : 01040237163
카톡ID : hhhm7163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실 수험생 여러분께 전하는 글]

저는 젊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젊기만한 강사는 아닙니다.

심지어 젊기까지한 강사입니다.

앞으로 누구보다 치열한 1년을 보낼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여러분보다 더 치열한 1년을 보낼 강사가 될 겁니다.

화려한 마케팅으로 도배된
사교육 시장에서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공감되는 강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실속있는 강의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관된 기준. 그리고 체화.

앞으로 1년 잘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젊기까지한 국어강사
후국일 김민수 올림.

수업 복습 자료

- ① 2018학년도 수능 기출 비문학 1지문
- ② 지문분석서
- ③ 자체 제작 해설지

[2018학년도 수능 16~19번]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구조 잡기
1문단 - 자연의 목적 지향성에 대한 의문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제시
2문단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근대 사상가들의 비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임.
3문단 - [근대 사상가들의 비판]에 대한 [일부 현대 학자들의 비판] -> 근대 사상가들의 비판은 충분한 근거없이 교조적 믿음에 의존할 뿐임.
4문단 - 17세기 물질론과 환원론을 바탕으로 자연물의 구성요소를 설명한 엠피도클레스. 그리고 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
5문단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갖는 의의 -> 첨단 과학이 발전한 지금까지도 그의 목적론은 [자연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탐구 =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의 출발점이 됨.

1문단

① 제재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가 되겠죠. 앞으로 이 지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죠. [질문 -> 그에 대한 답변, 이론이나, 주장, 견해]등의 구조로요.
-> 뒤 따라서 제시되는 개미의 사례와 낙엽의 사례는 결국 첫 문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 것에 해당하네요. 결국 개미와 낙엽, 우박 역시 첫 문장에서 말한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의 구체적인 사례라 는 거죠. [개미 : 목적 지향적으로 보이는 사례 <-> 낙엽이나 우박 : 목적 지향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례]를 통해서 제재를 구체화하고 있구요.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겠죠.

②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결국 1문단 내용의 전부죠.

아리스토텔레스 = 목적론 제시 =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1)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남
->[외적 원인X -> 내재적 "본성"O에 따른 -> 운동을 함]
2) [자연물 -> 목적을 갖음 + 실현한 능력도 타고남 -> 방해X라면 목적 실현 -> 바람직한 결과]

-1문단 정리
->결국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 목적론]을 제시한거죠. [Q & A]로 이루어진 뻔한 구조네요. 또한 이러한 [이론, 주장, 견해]가 등장하는 글에서는 그러한 [견해의 변화, 비판, 계승]등과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문 역시 그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크겠죠.

2문단

① 2문단은 1문단에서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근대에서의 비판]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대]죠. 강의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론, 주장, 견해]등이 제재일 때 [고대, 근대, 현대]등과 같은 시대에 대한 지표가 제시되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② 근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사물 생명력 X =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

1) 갈릴레이 : 목적론적 설명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음 -> 비과학적
2) 베이컨 :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 -> 비과학적
3) 스피노자 :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함 -> 비과학적

->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 여기서 하나만 짚고가면 그렇다면 이들은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라고 생각했겠죠.)

③ [그러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뒷 내용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앞의 제시된 비판에 대한 반박이라는 것ेल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라고 생각했다는 점 까지도요. 글의 구조를 잡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2문단 정리
->1문단에서 예상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 근대에 들어서 그러한 목적론에 대한 비판 -> 그러한 비판의 오류]를 설명하고 있네요. 즉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라고 비판했지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이성을 갖는다고 주장했으니까요. 아마 다음 문단에서 이러한 제재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축으로 내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겠죠.)

3문단

① 3문단은 2문단에서의 [근대 사상가들의 비판]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비판]이 제시되죠. 즉 [아리스토텔레스 -> 근대가 비판 -> 그러한 비판을 현대 학자들이 다시 비판]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② 일부 현대 학자들
-> 근대 사상가들 [(기계론적 모형 = 모든 사물이 기계)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

1) 볼로틴 :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 못했음 + 시도조차 하지 않음
2) 우드필드 :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갈릴레이와 공통점)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 목적론을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음

3문단 정리
-> 결국 [충분한 근거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판한 근대 사상가들]에 대한 [일부 현대 학자들의 비판]이 3문단의 중심이 되네요.

4문단

① 17세기의 과학과 그러한 경향에 따른 [물질론 -> 환원론]을 설명하고 이러한 환원론을 바탕으로한 엠피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제시되네요. 핵심은 [자연물의 구성 요소와 그러한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엠피도클레스 <->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읽어주셨으면 되겠죠.

② [17세기 과학의 경향]-> [물질론] -> [환원론]
-> 환원론은 [살아있는 생명체 = 죽은 물질]라는 것을 함축

③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피도클레스의 견해 반박]
1) 엠피도클레스는 [물질론 -> 환원론]을 주장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때문에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구요. 그러한 견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박하죠.
2)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님(=물질론 부정),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 화학적으로 환원너지도 않는다(=환원론 부정)

-4문단 정리
->17세기 과학의 경향과 더불어 제시된 물질론과 환원론 -> 그러한 물질론과 환원론을 바탕으로한 엠피도클레스의 견해 -> 그러한 견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물질론, 환원론 반박) 되겠죠. 그냥 엠피도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둘의 견해의 접점이 어딘지, 어느 부분에서 서로 다른지를 파악하면서 읽었어야 [구분/비교]를 묻는 선지들이 수월하게 지워졌겠네요.

5문단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의 의의를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갖는 의의 :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탐구 =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의 출발점이 됨.

-5문단 정리
-> 결국 1문단에서 소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핵심 제재로 끝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에 의의를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0

후국일 주간지 정답&해설

[2018학년도 수능 16~19번]

16번 : ⑤[거시]

->글의 거시적인 구조에 대해서 묻는 [논지 전개 방식] 문제죠. 의식적으로 글의 구조를 잡아나가면서 읽는 사람과 그냥 읽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생겨요. 조금만 의식적으로 글의 흐름을 잡아도 쉽게 걸러내는 문제가 되겠죠. 지문 분석서를 통해 글의 구조를 잡으신 분들. 눈에 확 들어오는 선지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⑤이죠. 그 느낌. 다른 선지들 사이에서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그 선지. 그 느낌을 기억해주세요. 그렇게 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문을 의식적으로 잘 읽어야 하구요.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 = 특정 이론]을 먼저 1문단에서 소개하고 2문단에서 그러한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그러한 비판을 3문단에서 검토하고 있죠. 그리고 4~5문단에서 그러한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의의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제시한 게 아니죠. 제시된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고, 그러한 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비판에 대한 검토가 제시되었을 뿐이죠.

②

->[상반된 주장]까지는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죠.

③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네요. 상당히 매력적인 선지였어요.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근대]라는 시대를 통해서 제시한 건 맞죠. 다만 현대에서는 그러한 이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러한 비판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고 있죠. 또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글이 아니라, [의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글이죠.

17번 : ③[주장/근거][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묻는 문제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즉 그의 목적론이 이 글을 전개해 나가는 가장 큰 흐름이자 중심축이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는 글의 큰 흐름을 잘 잡아가시면서 읽었다면 무난하게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네요. 단순히 읽고,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이런 평가원의 글의 구조를 익히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더 나아가서 묻고 있는 선지가 어떤 의도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 지문과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수능 날에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익히셔야 하는 것은 평가원의 지문 구성과 문제, 선지 구성에서의 본질적인 원리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즉 그의 목적론에 따르면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그러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역시 타고나죠. 또한 외적인 방해가 없다면 그런 본성은 반드시 실현되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와요.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이해를 통한 흐름을 잡아서 [당연하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가 많아져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일대일 대응으로 눈알 굴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①[구분/비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인간 이외에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 -> 생물 -> 인간]만이 이성을 갖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개미가 하는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겠죠. 목적을 추구하는 타고난 본성에 의한 것으로 할 거예요. 흐름을 기억해주세요. 그냥 [이성을 갖는다고 하지 않았어]라 글의 흐름을 통해 지워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②,④[인과]

->[자연물 ->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남 -> 내재적 본성에 따라 운동을 실현 -> 목적이 방해받지 않는 한 -> 반드시 실현 -> 바람직한 결과]의 흐름이죠. 적절하네요. 1문단에서 제시해준 [개미와 낙엽, 우박]등은 결국 [자연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을 통해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설명했잖아요.)

⑤[정의][인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고 주장한 게 [목적론]이었네요.

18번 : ②[구분/비교]

->전형적인 [구분 -> 비교] 문제죠. 따라서 여러분은 애초에 글을 읽을 때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아니라, 각각의 주장과 견해들이 어떤 기준에서 상위 개념으로 묶이는 공통점을 지니는 지, 하위개념에서의 차이점을 갖게 되는지를 [의식적으로]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큰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었죠. 갈릴레이는 [목적론 = 과학적 설명될 수 없음 =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펼쳤고,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긴 하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음]과 같이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했죠. 큰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둘의 주장 사이에서는 [목적론 =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녔죠. 여러분은 3문단을 읽으면서 해당 부분이 나왔을 때 선지로 구성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하죠. 뻔한 패턴이니까요. 작년 반추위 지문에서도 구성되었던 패턴이구요.

①[구분/비교]

->갈릴레이는 [기계론적 모형에 기반을 두고 ->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비판]했죠. 그리고 볼로틴은 그러한 근대의 사상가들이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 교조적 믿음]에 의존할 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했구요. 즉 목적론은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아니죠. 오히려 목적론에 대한 비판의 기반이 된 근대의 모형 이론이죠.)

③[구분/비교]

->우드필드에게만 해당하는 선지죠. **베이컨은 맛있죠**. 개소리 미안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공부에 지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피식하길 바라면서. **다시 돌아와서 베이컨은 우드필드가 비판한 [교조적 믿음] 의존한 근대의 사상가에 해당하죠. 즉 우드필드는 베이컨을 비롯한 근대 사상가들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을 뿐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바꾸는 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④[구분/비교]

->스피노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닌 **[왜곡]**한다고 했죠. 저는 실제로 글을 읽으면서 다른 부분 말고 **[왜곡]**이라는 워딩에만 표시를 했어요. 선지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밀줄은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짐만 될 뿐이죠.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이 밀줄을 치든 안 치든 상관없어요. 다만 저는 **[필요한 부분에만]** 밀줄을 긋는 것을 추천하고, 그렇게 연습시킬 거예요.) 또한 볼로틴은 현대 학자로서 그러한 근대 사상가들의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했을 뿐이지,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한 적은 없죠. 핵심은 **[스피노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선지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⑤[구분/비교]

->**[갈릴레이, 베이컨, 스피노자]와 같은 목적론을 비판한 근대 사상가들의 주장**이죠. 우드필드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19번 : ③[구분/비교]

-><보기> 문제는 3가지 유형을 띄죠. 이런 [견해, 이론, 주장]이 나올 때는 [지문 <-> <보기>]를 [구분/비교]하는 패턴으로 출제가 자주 되죠. 해당 문제 역시 그렇구요. 따라서 여러분은 <보기> 역시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문의 내용과 [공&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선지로 출제되는 건 당연하구요. <보기>를 정리해봅시다.

마이어 : 창발론을 주장

- 1) 세포 이상의 각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
- 2)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징들이 나타남]
- 3)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물질론 인정 <-> 아리스토텔레스) 물리 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봄(=아리스토텔레스=환원론 부정)

이렇게 정보가 정리되고 나면 선지에서 무엇을 물을지 당연하게 느껴지죠. ③가 적절하죠. **마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을 묻는 선지**네요. 둘은 모두 환원론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네요. 즉 **[물리, 화학적 법칙만으로는 생명체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본 점 말이에요. 다만 **[물질론의 인정 여부]**에서는 차이점이 있죠. 이 선지가 ①,②,⑤이구요.) 즉 정리하면 **[엠피데클레스 : 물질&환원론 모두 인정], [마이어 : 물질론은 인정, 환원론은 부정], [아리스토텔레스 : 물질론과 환원론을 모두 부정]**이죠. 따라서 ①, ②, ⑤는 모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네요. 이제 왜 이런 선지가 구성되었는지 아시겠나요? ;)

④

-><보기>의 정보 중 1)을 보시면 마이어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죠.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 = 목적 지향적]이라고 보기에 무방하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의 주된 주장이었죠. 따라서 두 학자 모두 동의했다고 봐야 되겠죠.

주간 과제물

- ①평가원 단문 기출 비문학 11지문
- ②지문분석 연습장
- ③자체 제작 해설지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27번]

㉠ 현대 산업 체계에서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8세기 말부터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1791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과학아카데미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 미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자오선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 ㉡ 눈금자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뒤 1875년에 미터 조약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1889년에 열린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안정성 높은 백금-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 원기(原器)’를 새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 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거나 훼손될 경우,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표준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20세기 과학의 발달로 원자 수준의 현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가능해졌다. 원자는 내부에 일정한 에너지 준위(準位)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원자 안의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0년 제11차 총회는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미터는 크립톤-86 원자의 $2p_{10}$ 과 $5d_5$ 준위 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진공 중 파장의 1 650 763.73 배와 같은 길이이다(CGPM, 1960).”

(주: 국제표준단위계(SI)는 큰 수를 3자리씩 구분하여 적음)

그러나 이 정의도 크립톤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약하므로 실제로 활용하려면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1960년대 이후 개발된 레이저 빛은 멀리까지 퍼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길이 측정에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길이 표준에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의견은 1983년 제17차 총회에 반영되어 미터 정의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99 792 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CGPM, 1983).”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속력을 정하려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 792 458(1.2) m/s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괄호는 측정 불확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에서 빛의 속력은 불확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된다. 그 대신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하게 된 것이다.

[A]

24.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 ① 표준의 정의는 더 좋은 측정 방법이 발견되더라도 변경하면 안 된다.
- ② 자오선의 길이는 언제든 측정이 가능하므로 복원 가능한 표준이 될 수 있다.
- ③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으므로 표준이 될 수 있다.
- ④ 1960년의 길이 표준과 1983년의 길이 표준은 빛의 동일한 속성을 이용했다.
- ⑤ 백금-이리듐 합금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없다.

25.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마다 달라서 호환 문제가 발생한다.
- ② 병원의 체온계마다 측정한 온도가 달라서 오진이 우려된다.
- ③ 건전지 전압이 제조 회사마다 달라서 전자 제품이 고장 난다.
- ④ 생산된 부품들의 치수가 공장마다 달라서 자동차가 고장 난다.
- ⑤ 시계의 시각이 은행마다 달라서 사업자 간에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26.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력이 길이의 표준을 결정하게 되었다.
- ② 길이의 측정값은 불확정도가 0이 될 수 없다.
- ③ 빛은 진공에서 1초에 299 792 458 미터를 진행한다.
- ④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 ⑤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27. ㉡은 ‘눈금’과 ‘자’가 [형체]와 [형체가 새겨지는 대상]이라는 의미 관계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다음 중 이와 같은 의미 관계를 보이는 것은?

- ① 꽃무늬 ② 삼각자 ③ 저울눈
- ④ 그림물감 ⑤ 모눈종이

⑦ 현대 산업 세계에서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8세기 말부터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1791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과학아카데미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자오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 미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자오선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 ㉠ 눈금자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뒤 1875년에 미터 조약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1889년에 열린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안정성 높은 백금-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 원기(原器)’를 새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 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거나 훼손될 경우,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표준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20세기 과학의 발달로 원자 수준의 현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가능해졌다. 원자는 내부에 일정한 에너지 준위(準位)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때 원자 안의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0년 제11차 총회는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미터는 크립톤-86 원자의 $2p_{10}$ 과 $5d_5$ 준위 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진공 중 파장의 1 650 763.73 배와 같은 길이이다(CGPM, 1960).”

(주: 국제표준단위계(SI)는 큰 수를 3자리씩 구분하여 적음)

그러나 이 정의도 크립톤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약하므로 실제로 활용하려면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1960년대 이후 개발된 레이저 빛은 멀리까지 퍼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길이 측정에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길이 표준에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의견은 1983년 제17차 총회에 반영되어 미터 정의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99 792 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CGPM, 1983).”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속력을 정하려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792\,458(1.2)\text{ m/s}$ 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괄호는 측정 불확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에서 빛의 속력은 불확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된다. 그 대신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하게 된 것이다.

단락 별 정리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A]

정부가 불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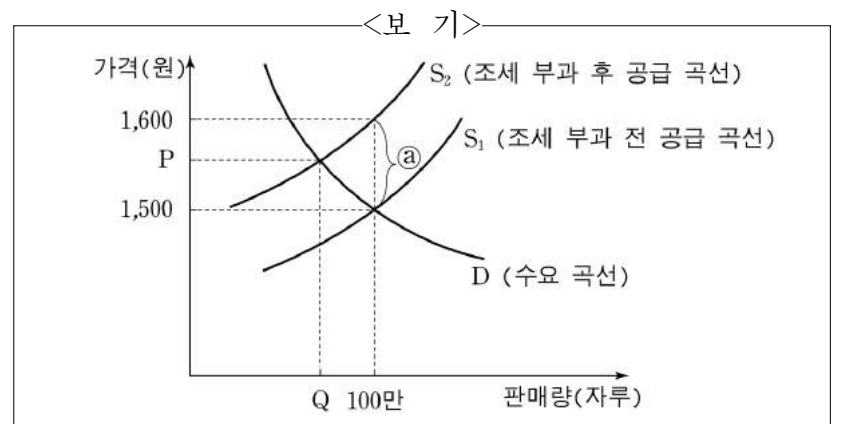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43. ‘조세전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조세 부담 비중이 달라진다.
- ②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조세전가의 혜택을 누린다.
- ③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물품세의 단위당 조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④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 ⑤ 조세전가가 발생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상실된다.

44.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부과 후 소비자는 P를 자루당 가격으로 지불한다.
- ② 조세 부과 후 생산자는 ㉠을 자루당 조세액으로 납부한다.
-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₁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④ 소비자의 자루당 세금 부담액은 P에서 1,500원을 뺀 것이다.
- ⑤ 조세 부과로 판매량이 100만 자루에서 Q로 줄어들게 된다.

45. ㉠,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바나나 가격이 오르면 곧 오렌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② ㉠: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구입을 쉽게 줄이는 소비자
- ③ ㉠: 상표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샴푸를 구매하는 소비자
- ④ ㉡: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농장주
- ⑤ ㉡: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액세서리 생산자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단락 별 정리
[A] 정부가 볼펜에 자루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 부과 전에 자루당 1,500원에 100만 자루가 거래되고 있었다면 생산자는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생산자는 1,500원이라는 가격에 불만을 갖게 되므로 가격을 100원 더 올리려고 한다. 생산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루당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한편, 조세전가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1,6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정부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도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된다.	
그렇다면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어느 측에 세금을 부과하든 ㉠ <u>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u>.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상승 요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 새로운 가격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즉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가격 하락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비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 <u>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u>. 이러한 조세전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누가 진정한 조세 부담자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남극의 빙하는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빙하를 분석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남극의 표층에 쌓인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점점 깊어 매몰되고 그에 따라 눈의 밀도는 점차 증가한다.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상부에 쌓인 눈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하부의 눈은 얼음으로 변형된다. 이때 눈 입자들 사이에 들어 있는 공기가 얼음 속에 갇히게 되고, 얼음이 두꺼워지면서 상부의 얼음이 가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이 형성된다. 이 속의 기포들은 당시 대기의 기체 성분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기포가 포함된 얼음을 시추하여 녹이면 원래의 상태로 바뀌고, 이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정밀 기기를 사용하여 그 속의 기체 성분을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빙하 속 기포 내의 대기 성분 정보를 통해 그 당시의 기온을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의 기온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나 수소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위원소란 원자 번호는 같지만 원자량이 서로 다른 원소를 말하는데, 산소의 동위원소로는 원자량이 16인 산소(^{16}O)와 원자량이 18인 산소(^{18}O)가 있다. 남극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들의 산소 동위원소비($^{18}\text{O}/^{16}\text{O}$)는 눈으로 내릴 당시의 기온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여름과 겨울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증감은 일 년의 주기를 갖는다. 오늘날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산소 동위원소비의 증감은 기온 변화와 거의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적용하여 빙하가 만들어진 당시의 기온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빙하에 대한 최근 연구는 산소의 동위원소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농도 변화도 기온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체들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가고 반대로 농도가 감소하면 기온이 내려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빙하로부터 알게 된 과거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 변화 폭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이들의 농도는 우려할 만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클라트레이트 수화물 : 고압과 저온의 조건에서 물 분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빈 공간에 메탄, 이산화탄소, 질소 등 분자량이 작은 기체가 들어 있는 결정체.

41. 위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1점]

- ① 남극 빙하의 가치
 - 기후 변화의 기록 보관소
- ② 남극 빙하 이야기
 -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실태
- ③ 빙하 연구의 현주소
 - 과학적 연구 성과와 전망
- ④ 남극, 거대한 실험실
 - 동위원소 연구의 현황
- ⑤ 남극 빙하의 과거와 미래
 - 새로운 자원의 보고

42. 위 글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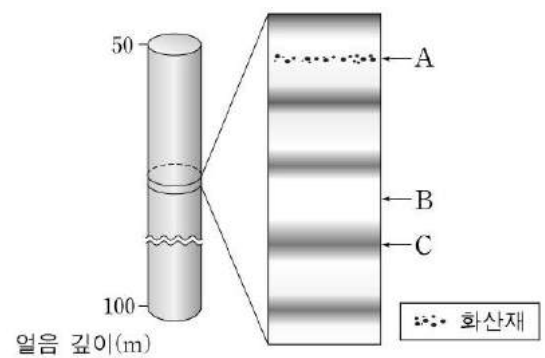
- 과제명 :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변화 양상
- 조사 대상 : 남극에서 시추한 빙하
- 조사 방법 및 내용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기체 성분 조사
 -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한 기온 측정
 - 산소 동위원소비 증감의 주기성을 이용한 (㉠) 조사

- ① 생성 연대 ② 오염 정도 ③ 평균 강도
- ④ 결정 구조 ⑤ 전체 부피

43. 위 글과 <보기>를 이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그림은 시추한 빙하의 일부분과 그것을 확대한 것이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ㄱ. 시추한 빙하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다.
- ㄴ. 시추한 지점의 표층 부분 눈의 밀도는 0.3 g/cm^3 이다.
- ㄷ. 산소 동위원소비는 검은 띠 부분에서 증가하고 흰 부분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① A에 해당하는 시기에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 ② B 지점이 C 지점보다 당시 기온이 낮았을 것이다.
- ③ 시추한 빙하 하부의 밀도는 0.3 g/cm^3 보다 클 것이다.
- ④ 시추한 빙하의 하부로 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 ⑤ 깊이 50 m인 지점보다 100 m인 지점의 얼음이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

남극의 빙하는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빙하를 분석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단락 별 정리
남극의 표층에 쌓인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점점 깊이 매몰되고 그에 따라 눈의 밀도는 점차 증가한다. 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상부에 쌓인 눈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하부의 눈은 얼음으로 변형된다. 이때 눈 입자들 사이에 들어 있는 공기가 얼음 속에 갇히게 되고, 얼음이 두꺼워지면서 상부의 얼음이 가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이 형성된다. 이 속의 기포들은 당시 대기의 기체 성분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기포가 포함된 얼음을 시추하여 녹이면 원래의 상태로 바뀌고, 이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정밀 기기를 사용하여 그 속의 기체 성분을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빙하 속 기포 내의 대기 성분 정보를 통해 그 당시의 기온을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의 기온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나 수소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위원소란 원자 번호는 같지만 원자량이 서로 다른 원소를 말하는데, 산소의 동위원소로는 원자량이 16인 산소(¹⁶O)와 원자량이 18인 산소(¹⁸O)가 있다. 남극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들의 산소 동위원소비(¹⁸O/¹⁶O)는 눈으로 내릴 당시의 기온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여름과 겨울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증감은 일 년의 주기를 갖는다. 오늘날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산소 동위원소비의 증감은 기온 변화와 거의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적용하여 빙하가 만들어진 당시의 기온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빙하에 대한 최근 연구는 산소의 동위원소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농도 변화도 기온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체들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가고 반대로 농도가 감소하면 기온이 내려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빙하로부터 알게 된 과거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 변화 폭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이들의 농도는 우려할 만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클라트레이트 수화물 : 고압과 저온의 조건에서 물 분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빈 공간에 메탄, 이산화탄소, 질소 등 분자량이 작은 기체가 들어 있는 결정체.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회화나 조각과 같은 공간 예술과는 달리,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작곡가들은 그 방법의 하나로 반복을 활용했다. 즉 반복을 통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반복의 양상과 효과는 <비행기>와 같은 동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요에서는 반복되는 선율이 노래를 하나로 묶어 주고 있다.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방’을 선택했다. 이때 ㉠ 모방은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현된다. 예를 들어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에 뒤이어 알토 성부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 간다. 이로써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성부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통일감을 느끼게 해 주는 짜임새가 만들어졌다.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들어서면 성악 음악을 구현하는 데 모방은 더 이상 효과적인 기법이 아니었다. 이제 음악가들은 화성을 중시해서,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화성 반주에 맞추어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하게 되었다. 화성 반주의 악보 중에는 저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음 성부에서는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되는 이른바 장식적 변주가 나타난다. 이로써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고전 시대에는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이 시대에 널리 쓰인 소나타는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를 이루는데, 마지막 악장은 첫 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음악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악장의 이런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는 론도 형식이 적합하다. 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들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각 시대의 작곡가는 입체적인 모방, 장식적인 변주, 형식적인 반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 구현된 악곡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음악은 시대마다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을 기본 원리의 하나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6.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반복은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 ② 선율의 반복은 노래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
- ③ 돌림 노래는 무반주 성악곡에서 변주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 ④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화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 ⑤ 반복 기법은 단순한 노래부터 복잡한 악곡까지 널리 사용된다.

17. ㉠의 방법에 따라 <보기>를 사용하여 3성부의 악곡을 만들 때, 도입부의 짜임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부1 A B | 성부2 A D | 성부3 A C |
- ② 성부1 A B | 성부2 A C | 성부3 A D |
- ③ 성부1 A B | 성부2 C D | 성부3 B A |
- ④ 성부1 C D | 성부2 D A | 성부3 A B |
- ⑤ 성부1 C D | 성부2 A B | 성부3 B C |

18. 위 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앵무조개 껍데기의 무늬는 반복의 미(美)를 보여 준다. 1:1.618의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도 아름다운데, 이 비율로 된 형태가 크기를 달리하며 반복되면 통일과 변화라는 또 다른 미감이 생긴다. 이런 반복과 변화의 미는, 르네상스의 건축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건축물에서 문과 창이 같은 형태에서는 반복의 미를, 다른 크기에서는 색다른 변화의 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이런 건축물을 세련되게 작곡된 음악에 비유해 ‘조화’라 불렀다.

- ① 반복의 미적 쾌감은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 양식이나 자연물에서도 느낄 수 있겠군.
- ② 소나타 악장의 대조는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유사한 것이겠군.
- ③ 장식적 변주는, 크기를 달리하며 변화되는 문과 창에서 느껴지는 색다른 미감과 유사한 것이겠군.
- ④ 바로크 성악 음악에서 화성 반주의 저음 성부는 앵무조개 껍데기 무늬에서 느껴지는 미와 통하겠군.
- ⑤ ‘조화’라 불리는 건축물에서 통일성과 변화가 공존하는 것처럼 음악에서도 이런 양면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군.

19. ㉡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 중 ㉡의 효과와 유사한 것은?

- ①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걸음걸음 치마폭이 너풀거린다.
- ②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대강 급한 일부터 끝내자.
- ③ 가뭄으로 논밭이 바싹바싹 타들어 간다.
- ④ 노랫소리가 멀리멀리 울려 퍼진다.
- ⑤ 공간을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웠다.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회화나 조각과 같은 공간 예술과는 달리,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작곡가들은 그 방법의 하나로 반복을 활용했다. 즉 반복을 통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반복의 양상과 효과는 <비행기>와 같은 동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요에서는 반복되는 선율이 노래를 하나로 묶어 주고 있다.



뗏 다 뗏 다 비 행 기 날 아 라 날 아 라 멀 리 멀 리 날 아 라 우 리 비 행 기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방’을 선택했다. 이때 ㉠ 모방은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현된다. 예를 들어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에 뒤이어 알토 성부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 간다. 이로써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성부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통일감을 느끼게 해 주는 짜임새가 만들어졌다.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들어서면 성악 음악을 구현하는 데 모방은 더 이상 효과적인 기법이 아니었다. 이제 음악가들은 화성을 중시해서,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화성 반주에 맞추어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하게 되었다. 화성 반주의 악보 중에는 저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음 성부에서는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되는 이른바 장식적 변주가 나타난다. 이로써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고전 시대에는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이 시대에 널리 쓰인 소나타는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를 이루는데, 마지막 악장은 첫 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음악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악장의 이런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는 론도 형식이 적합하다. 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들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각 시대의 작곡가는 입체적인 모방, 장식적인 변주, 형식적인 반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 구현된 악곡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음악은 시대마다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을 기본 원리의 하나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단락 별 정리

전체 구조 잡기

몰랐던 어휘 CHECK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0.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4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 ②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③ 개별자 수준의 인과는 집단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한 것이다.
- ④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별자 수준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42. ㉠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려 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 • 영화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 •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때 주지 않

(가) 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 _____ ㉡ _____

— •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 ① 좋은 씨앗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 ② 우리 집과 철수네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③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④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
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
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락 별 정리

전체 구조 잡기

몰랐던 어휘 CHECK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본 사람은 한 번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동영상 압축은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데이터의 양을 수백 분의 일까지 줄이는 기술이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등을 이용한다.

동영상은 연속적인 화면의 모음인데, 화면 간 중복은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것을 말한다.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동영상을 생각해 보자. 현재 화면을 이전 화면과 비교하면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화면을 모두 저장하지 않고 변화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만 저장하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나의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 한다.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원래의 화소 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들로 형태를 변환한 다음,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들만을 저장

[A] 한다. 이때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변환된 성분들을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질의 차이가 별로 없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화면이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 화소 간 중복이 많아져서, 제거 가능한 성분들이 많아진다. 다만 이들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화면이 흐려지거나 얼룩이 ① 지는 등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진다. 이러한 과정은, 우유에서 ② 수분을 없애 전지분유를 만들면 부피는 크게 줄어들지만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되는 것과 비슷하다.

압축된 동영상에 저장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는 위의 과정을 거쳐 이미 많은 부분이 제거된 상태이다. 통계적 중복은 이들 데이터에서 몇몇 특정한 값이 나오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말한다. 이때 자주 나오는 값일수록 더 짧은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하면, 데이터 값을 그대로 저장할 때보다 저장하는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3.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면이 복잡한 경우에는 화면 간 중복을 제거할 수 없겠어.
- ② 화면이 흐려지는 이유는 화소의 개수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어.
- ③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는 화소 간 중복만 제거할 수 있겠어.
- ④ 맨 첫 화면에서는 이전 화면이 없어 화소 간 중복을 제거할 수 없겠어.
- ⑤ 변환된 성분을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압축된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달라지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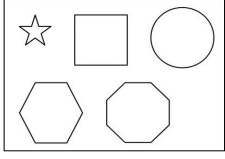
44. ㉠에 대응하는 것을 [A]의 동영상 압축 과정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나의 화면
- ② 동영상의 화질
- ③ 원래의 화소 값들
- ④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
- ⑤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

4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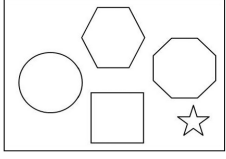
<보 기>

이전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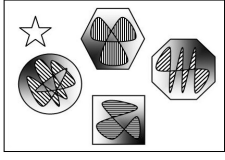


(가)

현재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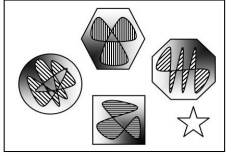


이전 화면



(나)

현재 화면



※ (가), (나)는 흑백 화면이며 화소의 개수가 모두 동일함.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 사이의 화면 간 중복 정도	현재 화면 내의 화소 간 중복 정도
①	(가)가 더 높다	(가)가 더 높다
②	(가)가 더 높다	(나)가 더 높다
③	(나)가 더 높다	(가)가 더 높다
④	(나)가 더 높다	(나)가 더 높다
⑤	(가)와 (나)가 같다	(가)와 (나)가 같다

46.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돌을 던지자 고요한 호수에 파문이 일었다.
- ② 눈 내린 마당에 강아지 발자국이 나 있다.
- ③ 주머니에 구멍이 생겨 동전을 잃어버렸다.
- ④ 새로 산 차에 흠이 가서 속상하다.
- ⑤ 그는 나이가 차 장가를 들었다.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본 사람은 한 번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동영상 압축은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데이터의 양을 수백 분의 일까지 줄이는 기술이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등을 이용한다.	단락 별 정리
동영상은 연속적인 화면의 모음인데, 화면 간 중복은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것을 말한다.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동영상을 생각해 보자. 현재 화면을 이전 화면과 비교하면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화면을 모두 저장하지 않고 변화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만 저장하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나의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 한다.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원래의 화소 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들로 형태를 변환한 다음,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들만을 저장 [A] 한다. 이때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변환된 성분들을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질의 차이가 별로 없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화면이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 화소 간 중복이 많아서, 제거 가능한 성분들이 많아진다. 다만 이들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화면이 흐려지거나 얼룩이 @ 지는 등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진다. 이러한 과정은, 우유에서 ㉠ 수분을 없애 전지분유를 만들면 부피는 크게 줄어들지만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되는 것과 비슷하다.	
압축된 동영상에 저장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는 위의 과정을 거쳐 이미 많은 부분이 제거된 상태이다. 통계적 중복은 이들 데이터에서 몇몇 특정한 값이 나오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말한다. 이때 자주 나오는 값일수록 더 짧은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하면, 데이터 값을 그대로 저장할 때보다 저장하는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체 구조 잡기

몰랐던 어휘 CHECK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위치적 외부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다.
- ②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면 경쟁자의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
- ③ 위치적 보상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 ④ 위치적 군비 경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면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⑤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의 결과가 경쟁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 ㉠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가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② 프로 경기 식전 행사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 ③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열기 전에 줄을 길게 서기도 한다.
- ④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다른 학생들보다 한두 해 늦게 입학하면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취학을 미루려고 한다.
- 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모두가 남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듣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21. ㉢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ㄴ. 집단 내 경쟁자들의 이익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ㄷ.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다.

ㄹ. 경쟁자들은 위치적 보상이 성과 향상을 위한 지출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ㄹ ⑤ ㄷ, ㄹ

22. ㉡와 ㉣의 ‘간’이 지닌 의미와 용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의미 ㄱ. 선택의 무차별성

 ㄴ. 대상들 사이의 관계

 ㄷ. 대상들 사이의 거리나 공간

용례 a. 그는 연단의 우측간에 앉아 있었다.

 b. 내외간에 숨기고 말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c. 그 일에 대해서는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 ① ㄱ - a ㄷ - c ② ㄱ - b ㄷ - a
- ③ ㄴ - b ㄱ - c ④ ㄴ - c ㄱ - b
- ⑤ ㄷ - a ㄴ - b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단락 별 정리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가)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나)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lyra)를 켜므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 2의 천성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㉔ 진실되고 ㉕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 그는 올바른 훈련이란 강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싶어하게 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성품의 탁월함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한두 번 관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늘 관대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관대함에 관하여 성품의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생각해 보자. 갑돌이는 성품이 곧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가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수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렇게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줍어하고 우유부단한 병식이기도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역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병식이는 일어나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자신과 힘든 싸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병식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병식이가 용기 있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갑돌이다. 왜냐하면 ㉖

(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가까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갑돌이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33. (가)~(마)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논제를 설정하기 위해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 ② (나)는 함축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③ (다)는 논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개념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④ (라)는 논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화를 사용하고 있다.
- ⑤ (마)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논점을 실제적인 물음과 연결 짓고 있다.

34. ㉖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옳은 일을 하는 천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 ② 그는 주체적 판단에 따라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③ 그는 내적인 갈등이 없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④ 그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 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해도 행위자의 감정이나 욕구 또는 성향이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훌륭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도덕적인 행위는 아닌 것이다.

- ①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는 행위자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 의해 결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②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내야 한다. 옳은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탁월한 성품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 ③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얼마나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품성이나 자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 ④ 훈련의 결과 언제나 탁월한 성품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탁월한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본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 ⑤ 훈련으로 얻어지는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은 대개 이성적 성찰을 거치지 않으므로, 도덕적인 행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36. ㉔의 의미는 결여되어 있으면서 ㉕의 의미는 들어 있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빈말 ② 너스레 ③ 생트집
- ④ 어깃장 ⑤ 인사치레

(가)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나)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lyra)를 켜므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므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진실되고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 그는 올바른 훈련이란 강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싶어하게 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성품의 탁월함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한두 번 관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늘 관대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관대함에 관하여 성품의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생각해 보자. 감돌이는 성품이 곧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가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수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그렇게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줍어하고 우유부단한 병식이기도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역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병식이는 일어나서 다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자신과 힘든 싸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병식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병식이가 용기 있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성품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감돌이다. 왜냐하면 ㉢

(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가까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감돌이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락 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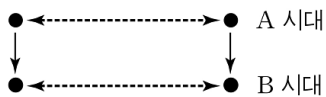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가)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고, 언어학이 역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을 어느 정도 고찰하지 않고서는 그 언어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파울의 말로 대변된다.

(나) 이러한 경향에 반해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더라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그 자체로서의 가치 체계와 변화에 따른 가치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언어를 정확하게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자는 하나의 상태 앞에 있을 뿐이며, 화자에게는 시간 속에 위치한 현상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무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



소쉬르에 따르면, 공시태는 위 그림에서 가로축에 해당한다. 공시태는 공존하는 사항 간의 관계를 말하는 동시성의 축이며, 시간의 어떠한 개입도 배제된 정적인 언어 상태이다(A 시대, B 시대). 통시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다(A 시대 → B 시대).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말은 현상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언어학자의 방법론이나 관점을 말하기도 한다. 공시적 연구는 언어의 한 상태를 고찰하는 것이고, 통시적 연구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고찰하는 것이다.

(라) 소쉬르의 개념과 방법론은 언어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쉬르가 공시태를 정적인 상태, 즉 정태와 동일시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의가 있어 왔다.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야콥슨은 음운 변이는 변하지 않는 언어 요소들과 같은 자격으로 공시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 정태와 ㉡ 공시태를 동의어로 보는 것은 오류라고 하였다. 마르티네도 언어가 변화하지만 기능이 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언어의 기능을 기술하려 할 때에도 그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소쉬르가 말한 공시태 개념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수정한 것이다.

40. (나)의 소쉬르의 관점에서 (가)의 파울의 관점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에는 역사의 유물과 같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언어학은 과거의 언어와 관련된 사실을 밝힐 수 없다.
- ② 화자의 말은 발화 당시의 언어 상태를 반영하므로 언어 연구는 그 당시의 언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③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변화의 내용보다는 변화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 ④ 현재의 언어와 과거의 언어는 각각 정적인 상태이지만 전자는 후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자연 현상과는 달리 과거의 언어와 현재의 언어는 인과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41. <보기>와 같이 ‘줍쌀’이란 단어에 대해 정리한 후, (다)에 쓰인 용어들을 적용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줍쌀’의 중세 국어 어형은 ‘조빨’인데, 이는 ‘조ㅎ’과 ‘빨’이 결합한 것이다.
- ‘조빨’은 ‘ㅂ’이 ‘ㅅ’으로, ‘·’가 ‘ㅈ’로 변화하여 오늘날의 ‘줍쌀’이 되었다.
- ‘줍쌀’의 ‘ㅂ’은 ‘빨’의 흔적이다.

- 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줍쌀’은 현대 국어에서 공시태이겠네.
- ② 현대 국어를 공시적으로 연구할 때는 ‘줍쌀’의 ‘ㅂ’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겠네.
- ③ ‘빨’이 어떻게 ‘쌀’이 되었는지를 고찰하면 그것은 통시적 연구이겠네.
- ④ ‘쌀’로 변하기 이전의 ‘빨’은 중세 국어에서 통시태이겠네.
- ⑤ 중세 국어에서 ‘조빨’을 ‘조ㅎ+빨’로 분석하면 그것은 공시적 연구이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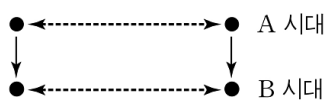
42. (라)를 바탕으로 ㉠과 ㉡의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날아가는 화살이 한 순간에 정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순간에도 이동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 ②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성장이 멈추는데, 이때 성장하는 과정이 ㉠이고 성장이 멈춘 상태가 ㉡이다.
- ③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퍼즐판의 상태는 다른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 ④ 음표는 악보에서는 기호이지만 연주될 때는 소리인데, 악보의 음표가 ㉠이고 연주된 소리가 ㉡이다.
- ⑤ 정지했을 때 보는 산과 이동 중일 때 보는 산의 모습이 다른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가)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고, 언어학이 역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을 어느 정도 고찰하지 않고서는 그 언어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파울의 말로 대변된다.

(나) 이러한 경향에 반해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라
라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
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그 자체로서
의 가치 체계와 변화에 따른 가치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언
어를 정확하게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자는 하나의 상
태 앞에 있을 뿐이며, 화자에게는 시간 속에 위치한 현상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시기의 언
어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
든 과정을 무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



소쉬르에 따르면, 공시태는 위 그림에서 가로축에 해당하는다. 공시태는 공존하는 사항 간의 관계를 말하는 동시성의 축이며, 시간의 어떠한 개입도 배제된 정적인 언어 상태이다(A 시대, B 시대). 통시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다(A 시대 → B 시대).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말은 현상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언어학자의 방법론이나 관점을 말하기도 한다. 공시적 연구는 언어의 한 상태를 고찰하는 것이고, 통시적 연구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고찰하는 것이다.

(라) 소쉬르의 개념과 방법론은 언어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쉬르가 공시태를 정적인 상태, 즉 정태와 동일시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의가 있어 왔다.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야콥슨은 음운 변이는 변하지 않는 언어 요소들과 같은 자격으로 공시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 정태와 ㉡ 공시태를 동의어로 보는 것은 오류라고 하였다. 마르티네도 언어가 변화하지만 기능이 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언어의 기능을 기술하려 할 때에도 그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소쉬르가 말한 공시태 개념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수정한 것이다.

단락 별 정리

전체 구조 잡기

몰랐던 어휘 CHECK

한 떨기 흰 장미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자.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식물학적 연구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나치에 항거하다 죽어 간, 저항 조직 ‘백장미’의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과 달리 우리는 종종 그저 그 꽃잎의 모양과 순백의 색깔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평소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순간들을 맞는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때에는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오직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어가 ‘미적 무관심성’이다. 칸트가 이 개념의 대표적인 대변자인데, 그에 따르면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미적인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X는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X의 형식적 측면이 우리의 감수성에 쾌·불쾌를 주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무관심적 관심’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얻거나 알고자 하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X의 존재 가치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있다.

㉠ 대상의 개념이나 용도 및 현존으로부터의 완전한 거리두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순수 미적인 차원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당화는, 쇼펜하우어에 이르러서는 예술미의 관조를 ㉡ 인간의 영적 구원의 한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사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불교에 심취한 그는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개념에서 더 나아가 ‘미적 무욕성’을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는 ‘맹목적 의지’가 지배하는 곳으로, 거기에 사는 우리는 ㉢ 욕구와 결핍의 부단한 교차 속에서 고통받지만, 예술미에 도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해방을 맞는다. 즉 ‘의지의 폭정’에서 벗어나 ㉣ 잠정적인 열반에 도달한다.

미적 무관심성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옹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추구될 경우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을 또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독립 선언이 곧 ㉤ 고립 선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의 고유한 가치는 진리나 선과 같은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고양된다. 요컨대 예술은 다른 목적에 종속되는 한갓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의 지적·실천적 역할이 완전히 도외시되어서도 안 된다.

33. ㉠~㉤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대상의 유용성, 실재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심리적 태도
- ② ㉡: 개별적 취향의 만족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정신의 구원으로까지 고양되는 경지
- ③ ㉢: 끊임없이 무엇을 얻고자 하나, 완전한 만족 대신에 부족함만이 지배하는 상태의 지속
- ④ ㉣: 예술미에 침잠하여 잠시나마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상태
- ⑤ ㉤: 예술가들이 작품 창조를 위해 세속으로부터 고립된 별도의 작업 공간을 요구하는 선언

34. 영화에 대한 감상 중, 위 글의 칸트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영화는 그 시대의 모순 고발과 전망 제시라는 두 가지 숙제를 훌륭히 해내고 있는 우수작이다.
- ② 영화에 세상일을 개입시키려는 태도는 잘못이야. 영화는 보고 즐기는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니?
- ③ 이 영화의 색채 묘사나 카메라의 시점 처리 같은 대담한 형식 실험은 상식을 뛰어넘은 독특한 심미적 가능성을 열어 줬.
- ④ 이 영화의 흥행 가능성에 대해 난 매우 부정적이야. 주인공만 해도 어름들이나 좋아할 스타일이지, 우리가 보기엔 좀 어색하지 않니?
- ⑤ 영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소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낭비야.

35. 위 글의 주요 개념을 사용하여 <보기>의 ‘쾨베르크의 음악’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쾨베르크의 음악은 음의 높낮이와 리듬만으로 구성된 작은 단위들의 변형과 발전을 통해 구현되지만, 주음-부음 관계를 파괴하는 불협화음 전략에는 억압적 사회 구조로 인한 고통, 이에 대한 폭로와 저항 등이 오묘하게 함축되어 있다.

- ① ‘미적 무관심성’에서 ‘미적 무욕성’으로 이행하는 음악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 준다.
- ② ‘미적 무관심성’과 ‘미적 무욕성’이라는 조화되기 힘든 두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한다.
- ③ ‘미적 무관심성’과 예술의 ‘지적·실천적 역할’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예술의 가치를 잘 드러낸다.
- ④ ‘미적 무관심성’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추구함으로써 음악의 ‘지적·실천적 역할’을 수행한다.
- ⑤ ‘미적 무관심성’을 극한까지 밀고 간 작품으로, ‘지적·실천적 역할’ 같은 음악 외적 요소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한 떨기 흰 장미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자.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식물학적 연구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나치에 항거하다 죽어 간, 저항 조직 ‘백장미’의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과 달리 우리는 종종 그저 그 꽃잎의 모양과 순백의 색깔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평소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순간들을 맞본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때에는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오직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어가 ‘미적 무관심성’이다. 칸트가 이 개념의 대표적인 대변자인데, 그에 따르면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미적인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X는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X의 형식적 측면이 우리의 감수성에 쾌·불쾌를 주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무관심적 관심’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얻거나 알고자 하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X의 존재 가치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있다.

㉠ 대상의 개념이나 용도 및 현존으로부터의 완전한 거리두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순수 미적인 차원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당화는, 쇼펜하우어에 이르러서는 예술미의 관조를 ㉡ 인간의 영적 구원의 한 가능성으로 평가하는 사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불교에 심취한 그는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개념에서 더 나아가 ‘미적 무욕성’을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는 ‘맹목적 의지’가 지배하는 곳으로, 거기에 사는 우리는 ㉢ 욕구와 결핍의 부단한 교차 속에서 고통받지만, 예술미에 도취하는 그 순간만큼은 해방을 맞본다. 즉 ‘의지의 폭정’에서 벗어나 ㉣ 잠정적인 열반에 도달한다.

미적 무관심성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옹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추구될 경우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을 또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독립 선언이 곧 ㉤ 고립 선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의 고유한 가치는 진리나 선과 같은 가치 영역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더욱 고양된다. 요컨대 예술은 다른 목적에 종속되는 한갓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의 지적·실천적 역할이 완전히 도외시되어서도 안 된다.

단락 별 정리

전체 구조 잡기

몰랐던 어휘 CHECK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연관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물을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模寫)하는가?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 보자.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 그것이 육면체라 판단한다고 하자. 그는 특정 시점 t_1 에서 그것의 특정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1 를 획득하고, 특정 시점 t_2 에서 그것의 또 다른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2 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관찰을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그는 최종 판단 시점 t_N 에서 그때까지 그 사물의 모든 속성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들, 즉 d_1 부터 d_N 까지를 토대로 ‘이것은 육면체이다.’라고 판단한다. 철수의 관찰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t_1	d_1
t_2	$d_1 + d_2$
$\vdots$	$\vdots$
t_N	$d_1 + d_2 + \dots + d_N$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즉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다. 최종 판단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속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최종 판단 시점의 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주지 않는다. 그것들이 최종 판단의 자료로 유효하려면 t_1 에서 t_N 까지 사물의 속성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사고는 시공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 작용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으로 만든다.

36.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감각과 분리된 사고의 한계
- ②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물의 한계
- ③ 인간의 감각 기관의 발달 과정과 그 한계
- ④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의 한계
- ⑤ 인간의 의식 발달의 조건과 생물학적 한계

37. ‘철수’의 사고 과정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것의 속성인 색깔, 모양, 크기를 순서대로 관찰하면서 색깔의 관념, 모양의 관념, 크기의 관념을 순서대로 얻은 뒤, 이 세 개의 관념을 종합하여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판단한다.

- ① 색깔을 보는 시점에 크기의 관념은 의식 속에 없다.
- ②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
- ③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은 변했다.
- ④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 ⑤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은 변했다.

38. 위 글의 주제를 함축한 말로 강의를 시작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강의실이 어제의 이 강의실 맞나요?
- ② 오늘은 도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③ 여러분은 평소에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 ④ 우리는 곧잘 우리 자신이 한 약속조차 잊곤 합니다.
- ⑤ 오늘은 덧셈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39. ㉠의 어간 ‘불구하-’는 일부 어미와만 결합한다. 이와 같은 용언이 아닌 것은?

- ① 송아지가 애처롭게 울었다.
- ② 허구한 날 팔자 한탄만 한다.
- ③ 친구의 집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
- ④ 나는 서슴지 않고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 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그것들의 본질적인 연관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 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물을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模寫)하는가?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 보자.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 그것이 육면체라 판단한다고 하자. 그는 특정 시점 t_1 에서 그것의 특정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1 을 획득하고, 특정 시점 t_2 에서 그것의 또 다른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2 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관찰을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그는 최종 판단 시점 t_N 에서 그때까지 그 사물의 모든 속성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들, 즉 d_1 부터 d_N 까지를 토대로 ‘이것은 육면체이다.’라고 판단한다. 철수의 관찰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t_1	d_1
t_2	$d_1 + d_2$
$\vdots$	$\vdots$
$\vdots$	$\vdots$
t_N	$d_1 + d_2 + \cdots + d_N$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즉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다. 최종 판단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속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최종 판단 시점의 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주지 않는다. 그것들이 최종 판단의 자료로 유효하려면 t_1 에서 t_N 까지 사물의 속성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사고는 시공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 작용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으로 만든다.

단락 별 정리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후국일 주간지 입문 1주차 정답&해설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27번]

24번 : ③[조건/가정]

->3문단 마지막 [변하지 않는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표준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4문단 [이 때 원자 안의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0년 제 11차 총회는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의하였다.]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물론 이러한 정의 역시 후에 수정이 되었죠. 하지만 그러한 수정의 이유는 [파장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따라서 표준이 될 수는 있었지만, 실용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표준을 정의한 것이죠.

④[조건/가정]

->표준의 정의는 지문에서 제시된 것만 하더라도 여러 번 바뀔 수 있음. 더 좋은 측정 방법이 발견되면 변경할 수 있음. 4문단 [과학의 발달로 원자 수준의 현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가능해졌음->그래서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의함]에서 근거를 찾으면 됨.

②[사실/특징]

->2문단 [그러나 자오선의 길이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라 눈금자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에서 '언제든 측정이 가능하므로'가 적절하지 않음을 찾을 수 있음. [쉬움<->어려움]으로 오답 선지를 구성한 뻔한 유형.

④[구분/비교]

->[1960년대->원자에서 나오는 복사선을 이용]<->[1983년은 빛의 속력을 이용]이므로 동일한 속성을 이용한 것이 아님.

⑤[인과]

->백금-이리듐 합금이 인공물인 것은 맞지만, 인공물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표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아니다. 그 이유는 3문단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 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거나 훼손될 경우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표준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25번 : ①[예시]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 없음->큰 혼란]을 찾는 것이다.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마다 다른 것은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량형이란 '길이·부피·무게, 또는 이를 재고 다는 기구나 그 단위법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충전기가 다른 것은 어떠한 단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②[예시]

->[온도 달라->오진이 우려]이므로 적절함.

③[예시]

->[건전지 전압이 달라->전자 제품 고장 남]

④[예시]

->[치수가 공장마다 달라서->자동차가 고장 남]

⑤[예시]

->[시각이 달라서->사업자 간에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

26번 : ⑤[구분/비교]

->[규정<->측정]을 [구분]을 못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움. 규정이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함'인 것이고, 측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양이나 크기를 잴'을 의미한다. 즉 원 말이나면, 규정은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측정은 실재를 관측한 값이라고 보면 됨. 마지막 문단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 없다.]+[그러나 새로운 정의에서 빛의 속력은 불확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된다]에서 근거를 잡으면 됨. 즉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짐->그럼 그냥 빛의 속력을 우리가 불확정도가 0인 값으로 규정해버리자->개꿀~]임.

①,④[인과][선후]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 [그 대신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하게 된 것이다.]에서 확인 가능함. 즉 [길이->속력 측정]->[속력 규정->길이 측정]으로 바뀐 것임. 따라서 속력이 길이의 표준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당연히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함.

②[인과]

->○○○. 길이든 속력이든 마지막 문단에서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불확정도가 0이 될 수 없음)]이므로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음.

③[정의]

->6문단[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99 792 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마지막 문단[예를 들어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 792 458(1.2)m/s라는 식으로 복잡하게~]에서 확인 가능.

후국일 주간지 입문 1주차 정답&해설

27번 : ⑤

->안 틀렸죠..? [모눈 = 직사각형 모양에 가로와 세로로 일정한 간격의 직선을 그어 여러 개의 정사각형으로 만든 것]이고 그러한 모눈이 새겨진 게 모눈종이죠.)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45번]

43번 : ①[인과]

->4문단 [그렇다면 양측의(=소비자&생산자)의 실제 부담 비중(=조세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이는(=그 비중은)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②[정의]

->? 개소리네요. 누구에게 부과된 조세 전가가 일어나면 전가를 당하는 쪽은 손해를 보는 거죠. 조세전가의 정의가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③[인과/선후]

->선후 관계를 바꿈. [단위당 조세액 측정->정부에서 부과->그 후에 조세전가 현상 발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세액이 조세전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선후/인과]를 거꾸로 바꾼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④[인과]

->2문단 [그러나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불만이 누그러지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소비자도 불만이 생기니까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고, 그 양측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조세를 나눠서 부과하겠지요.)

⑤[인과]

->[조세 부과->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 작동->조세 전가 비중 결정]이었잖아요.)

44번 : ③[인과]

->경제에서 그래프만 나오면 기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글만 잘 읽으면 경제만큼 쉬운 지문도 없어요. 그게 안 돼서 어려운 거긴 한데. 1년동안 같이 잘 해봅시다구요.). [A]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생산자에게 정부에서 조세액 부과->생산자가 가격 상승시킴->시장의 가격 조정 작동->소비자&생산자의 힘의 균형 지점에서 가격 형성->그 증가한 가격만큼 소비자에게 조세가 전가]를 파악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P에 해당하는 점이 시장 가격 조정을 통해서 결정된 가격이고, [P-1500]만큼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조세액이고, [1600-P]가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액의 비중이겠죠. 조세액은 100원 이겠네요. 조세액을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S2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지, S1그래프는 왼쪽으로 이동하되, S2만큼 보다는 적게 이동하겠네요.

④[예시][인과]

->2문단 [결국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양측의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이르게 되며 1500원~1600원 사이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됨->그게 P.]

②[가정/조건]

->2문단 처음[정부가 볼펜에 자루 당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자.] + 2문단 마지막 [즉 생산자는 법적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에서 확인이 가능. 실제로 생산자가 ④인 100원만큼을 납부는 하는데, 가격을 올렸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그 올라간 가격 상승분만큼 조세가 전가된 것이지요.

④[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된 조세액=P-1600원]임. 즉 소비자에게 원래 가격에서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된 후에 가격이 상승한 만큼 조세액이 전가되는 것이죠.

⑤[인과]

->학생 여러분 시력은 좋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선지네요.)

45번 : ⑤[인과][예시]

㉠ :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 부담]

㉡ :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 부담]

[유행이 바뀌어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즉 빨리 재고를 처리해야 된다는 말은 생산량을 조정할 수 없이 최대한 빨리 다 팔아야하는 거니까->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적절함.

①,②,③

후국일 주간지 입문 1주차 정답&해설

->[바나나->오렌지] 바나나의 구입량을 줄일 수 있음. / 커피의 구입량을 쉽게 줄이는 경우도 마찬가지. / 상표와 상관없이 저렴한 것을 구매->그 말은 어떤 상표가 되었든 가장 싼 것으로 사면되니까 기존의 사던 상표에 대해 구매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 됨.

④

->사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했으면, 그 만큼 팔 사과의 생산량을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41~43번]

41번 : ①[의의]

->[1문단 남극 빙하->과거 지구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생생하게 보관->그래서 그러한 빙하를 분석하면->지구 온난화 등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이죠. 이러한 내용은 남극 빙하의 '의의, 가치, 중요성'정도로 파악 가능함. 또한 부제는 빙하가 같은 정보 중에서도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가 중점이므로 '기후 변화의 기록 보관소'가 적절함.

42번 : ①[목/수]

->지문의 내용이 <보기>에 요약 되어있네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기체 성분 조사->2문단],[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한 기온 측정&산소 동위원소비 증감의 주기성->3문단]임. 3문단에서 [산소 동위원소비는 눈으로 내릴 당시의 기온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여름과 겨울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증감은 일 년의 주기를 갖는다.->즉 그러한 증감의 주기를 이용해 1년 단위씩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생성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이므로 적절함. 나머지는 지문에 해당 설명이 없는 선지들임. 감으로 고르지 말자구요.

43번 : ④[인과]

->[상부~하부]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는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가 아님. 4문단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가고, 반대로 농도가 감소하면 기온이 내려간다는 사실]밖에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우리는 [검은 띠->동위원소비 증가->기온이 높음->농도 높음]<->[하얀 띠->동위원소비 감소->기온이 낮음->농도 낮음]만 파악 가능함.

①[인과]

->ㄱ에서 시추한 빙하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A는 그 화산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화산재 있네->화산 활동으로 인해 쌓인 화산재가 같이 빙하에 매몰된 것->화산 활동이 있었겠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②[인과][비교]

->[B->하얀 띠->동위원소비 낮음->기온이 낮으면 동위원소비가 낮음->따라서 B는 기온이 낮음]<->[C->검은 띠->동위원소비 높음->기온이 높으면 동위원소비가 높음->따라서 C는 기온이 높음]이라고 생각해주면 됨.

③,⑤[인과][비교]

->2문단 [남극의 표층에 쌓은 눈은 계속 내리는 눈에 덮이면서 점점 깊이 매몰->그에 따라 눈의 밀도는 점점 증가->일정한 깊이에 이르면 상부에 쌓인 눈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하부의 눈은 얼음으로 변형됨->즉 하부의 눈은 압력을 더 많이 받아서 밀도가 더 낮아져 얼음으로 변함->얼음이 두꺼워지면서 상부의 얼음이 가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클라트레이트 수화물이 형성]이므로 하부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함.(=③) 또한 위에 쌓은 눈보다 아래 쌓은 눈, 즉 깊이가 더 깊은 눈이 먼저 형성되고 쌓였을 것임.(=⑤)

[2009학년도 수능 16~19번]

16번 : ③[구분][목/수]

->2문단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입체적 효과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모방 사용->모방이란->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면서 구현->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것]에서 확인 가능 함. 즉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것=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그게 바로 모방->모방을 통해 무반주 성악곡에서는 입체적 효과를 줌]이다. 따라서 [돌림 노래는 무반주 성악곡에서 반복 기법으로 적용된 것]이지 [변주의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 [반복<->변주]구분 못했으면 틀림. 제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통일감]이런 문장만 날려 읽고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①[선후/목수],④[선후]

->맞음. [2문단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모방과 같은 반복의 기법 적용]->3문단 바로크 시대에는 모방 효과적X+화성 중시이므로 화성 반주에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 저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 됨+고음에서는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이게 바로 변주의 다양성(=④)->[4문단 고전 시대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그 사이에 반복되는 악장의 주제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를 삽입]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반복+변화]의 양상이 변화한 것을 서술한 것이 글의 핵심이잖아요.)

후국일 주간지 입문 1주차 정답&해설

②[목수][비교]

->바洛克 시대에 기법에 대한 선지네요. 3문단 [바洛克 시대 음악가->화성을 중시해서->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저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 반복+고음 성부에서 선율의 변주=장식적 변주’->반복의 일관성(=저음부)+변주의 다양성(=고음부)=조화된 아름다움(By장식적 변주)]이므로 적절함.

⑤[예시][비교]

->[단순한 노래=동요=비행기, 복잡한 악곡=악곡=소나타]이므로 적절하죠. 지문의 구체적인 예시를 일반화한 문장이네요.

17번 : ①[예시]

->[2문단 ①모방=시작부분은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현->예를 들어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에 뒤이어 알토 성부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 간다.]에서 나온 원리를 그대로 <보기>에 적용하는 전형적인 [예시]문제네요. 핵심은 [같은 선율로 시작->그 후에 다른 선율로 이어짐]임. 찾아봅시다. ①밖에 없네요. “소프라노 성부와 알토 성부가 다르잖아요. 근데 왜 다 A로 시작해요?”라는 소리는 ㄴㄴ. 애초에 <보기>에 있는 게 [선율]이고, 성부는 1,2,3으로 나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1 소프라노, 성부2 알토 성부3~~]인데, 애들의 첫 선율이 A로 같고 그 다음 선율이 B,C,D로 다른 거죠.)

18번 : ②[예시][비교]

-><보기>가 조금 긴데, 결국 [반복]과 [변주]의 개념을 [구분/비교]하고 그러한 [수단]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를 지문에서 파악했는가, 파악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보기>의 [예시]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가, [반복+변주=통일과 변화의 효과]가 글의 핵심인거 글에서 찾았나를 묻네요. <보기>에서 [빈 종이의 경우->‘비율’(=반복)+형태와 크기(=변주)=통일과 변화의 또 다른 미감]이 핵심이지요 또 [건축물의 경우->‘같은 형태’(=반복)+다른 크기(=변주)=색다른 변화의 미]이고, 이게 ‘조화’라는 거죠. 소나타 악장에서의 대조는 [변주]에 해당하는 거지. 즉 [소나타 악장의 경우->‘악장의 주제 주기적 반복’(=반복)+그 사이 새로운 주제 삽입(=변주)잖아요. 그런데 빈 종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은 [반복+변주]의 효과이지, [변주]의 효과가 아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네요.

④[예시][비교]

-><보기>에서 [빈 종이, 건축물, 앵무조개 껍데기(=자연물)]이네요.

③[예시][비교]

->[장식적 변주=변주]이고 [변화되는 문과 창=변주]이니까 문맥 상 같은 의미죠. 적절해요.

④[예시][비교]

->[화성 반주의 저음 성부=반복되는 부분]이고, [앵무조개 껍데기의 무늬=반복의 미를 보여줌]이니까 동일한 의미네요.

⑤[예시][비교]

->[건축물의 경우->반복+변주=색다른 변화의 미]였잖아. 이게 ‘조화’였고. 음악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게 반복과 변주를 통한 효과였잖아요. 그 효과의 목적이 뭐였죠? 이게 글의 핵심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위 글에서는 그렇게 길게 설명한 거죠.)

19번 : ①

->이 문제가 여기 문제들 중 제일 어려움. ‘사이사이’는 ‘사이’가 반복되면서 그 ‘마다’라는 의미가 더 해짐. 즉 ‘사이사이마다’라는 의미를 지니지. 또 다른 방식은 ‘복수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 찾으면 됨. 즉 ‘사이들에’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적용해보면 ①맞고 적용되는 거 없을 거 예요.

[2009학년도 수능 40~42번]

40번 : ④[거시]

->[개별적 인과와 집단적 인과의 관계를 ‘필연적<->개별적’이라고 파악하는 두 입장이 서로 논쟁하는 글]이잖아. 그러니까④이죠. 사실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제인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쉬운데.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글을 읽고 나서 바로 문제 풀지 말고 큰 흐름을 정리해보세요, 멀리서 글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 문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단이 결국 무엇을 말하기 위해 쓰였나를 찾으라는 거죠.

①

->[내용 종합->새로운 주장]이 없음.

②[비교]

->[상반된 견해]는 맞는데 [절충적 대안]이 없네요.

③[비교]

->[장단점을 비교]하는 게 아니지. [두 주장의 차이]를 비교했죠.

⑤

->[일반인의 상식]만 보고 혹했으면 안 돼요ㅠ.

후국일 주간지 입문 1주차 정답&해설

41번 : ⑤[비교]

->[집단 수준의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집단&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개별적'으로 파악]<->[필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집단&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으로 파악]이었잖아요.)

①[사실/특징]

->개소리네요!;

②[사실/특징]

->1문단 마지막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왔다.]에서 확인 가능. 즉 [믿어왔다<->받아들여지지 않았]다]로 오답 선지 구성했죠.

③[인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일반화->집단 수준의 인과]잖아. 거꾸로 되었네요.

④[비교]

->2문단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 3문단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해당 선지는 한 쪽의 입장 [필연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일 뿐.

42번 : ④[비교][예시]

->①[개별자 수준의 인과->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네요. 4문단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려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가 핵심 근거죠. 즉 간단히 하면 [개별 사례에 다른 요인 있더라도+모든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 개별성에서의 A라는 요인이 필수적이 요인이 된다면 집단 수준에서도 A라는 요인은 필연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말이네요. <보기>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문제. [좋은 씨앗->좋은 열매]이게 바로 [필연적 요인]이죠. (가)에서 나머지 요인은 [그 외 요인]에 해당하구요. 즉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씨앗->좋은 열매]는 필연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④이 적절하네요.

①[예시]

->[좋은 씨앗->안 좋은 열매]의 경우는 있더라도 [안 좋은 씨앗->좋은 열매]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겠네요.

②[예시]

->ㄴㄴㄴ. [물을 제때 주지 않아, 병충해]라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거니까 이것은 필연적인 요인 외에 요인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없어요.

③[예시]

->?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잖아. 영희 개 이득;

⑤[예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필연적 요인->좋은 씨앗->나머지는 그 외에 요인]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네요.

[2009학년도 수능 43~45번]

43번 : ⑤[인과]

->ㅇㅇ. 화소 간 중복에서 3문단 [이 때 화소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변환된 성분들을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화질의 변환된 성분들을 저장하는 개수 줄어들음->그 줄어든 만큼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음.]이잖아. 즉 [변환된 성분 감소->데이터의 양의 감소->압축된 동영상 파일의 크기 감소]이겠죠.

①[구분/비교][목/수]

->화면이 복잡한 거랑 화면 간 중복을 제거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화소간 중복]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 글을 날려 읽은 거겠네요. 너무 팩트 인가. 화면 간 중복은 한 화면이 아니라, 이전 화면과의 중복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복잡한 화면이라도 이전 화면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면 제거하면 되죠.

②[인과]

->[화소 간 중복에서->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 제거->즉 변환된 성분들을 줄임->근데 너무 많이 줄이면->화면이 흐려지거나 얼룩이 지는 것과 같이 화질이 나빠짐]이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③[인과][구분/비교]

->화소 간의 중복에서도 [화질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질의 차이가 별로 없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다만 너무 많이 줄이면 화면이 흐려지거나 얼룩이 짐]이라고 했음. 따라서 굳이 진짜로 아주 조금이라도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는 [화소 간의 중복]을 제거하진 않겠죠. 화면 간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통계적 중복을 제거하겠네요.

④[구분/비교]

->화소 간 중복은 [하나의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 화면과 관련 없어요. 이전 화면과 관련 있는 것은 [화면 간의 중복]에 해당하죠.)

후국일 주간지 입문 1주차 정답&해설

44번 : ⑤

->[우유에서 ①수분을 없애 전지분유를 만들면 부피는 크게 줄어들지만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되는 것]이 근거죠. [우유=원래 데이터의 화면, 수분=화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변환된 성분, 즉 제거 가능한 성분, 맛=화질]이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⑤이예요. 도저히 나머지 중에는 헛갈릴 만한 게 없는데 혹시 틀렸으면 질문하세요:)

45번 : ③

->(가)보면 이전 화면과 현재 화면이 다르게 생겼어요. 도형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전 화면의 대상들이 움직이고, 이동한 것임. 따라서 [화면 간 중복]에서는 지울 게 거의 없음. 다만 한 화면에서의 대상들이 단순하게 비슷한 선에 하얀색 배경이잖아요. 즉 지문에서의 [A]중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에 해당하네요. 따라서 [화소 간 중복]에 더 적절하죠. 반면 (나)에서는 한 화면 자체는 복잡하지만 [이전<->현재]의 화면이 거의 똑같네요. 별 하나 말고는 〇〇. 따라서 복잡하니까 [화면 간 중복]에 더 적절해요.

46번 : ⑤

->[지다]는 [얼룩과 결합하여 없던 것이 새로 생기다]정도의 의미예요. 그냥 '생기다'로 바꿔서 넣어보면 ⑤은 말이 안 되어요:)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22번]

19번 : ③[인과]

->지문에서 알 수 없는 내용임이네요. 3문단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이다.]가 있긴 한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름->그래서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옴]의 내용이지, [개인의 유인&사회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 위치적 보상은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①[인과]

->2문단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에서 확인 가능. [즉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정도가 크려면 -> 당연히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 사이]겠죠:)

②[인과]

->2문단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에서 확인 가능하죠.

④[조건/가정]

->4문단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위치적 군비 경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에서 확인 가능.

⑤[인과]

->〇〇. 1문단 [위치적 위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손해)시킨다.]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20번 : ②[예시]

->[자신의 상대적 위치 향상->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 하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게 핵심. ②은 모두가 향상이잖아요:)

①[예시]

->[특정 후보의 사퇴(=하락 -> 나머지 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함(=향상))]이므로 적절함.

③[예시]

->[누군가는 좋은 좌석(=향상) -> 누군가는 나쁜 좌석(=하락)]이잖아. 그리고 [줄 서는 것=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④[예시]

->[한두 해 늦게 입학하면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향상) ->그 럼 정상적으로 입학한 애들의 학업 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낮겠지(=하락)]이므로 적절해요.

⑤[예시]

->[모두가 남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출을 모두가 늘려서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면 되죠. 또 [내가 크게 말해서 잘 들림(=향상)->다른 누군가의 얘기는 안 들림(=하락)]이라고 보면 되구요.

후국일 주간지 입문 1주차 정답&해설

21번 : ④[인과]

->위치적 군비 경쟁은 3문단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투자를 늘리는 것이 성과를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ㄹ).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이익의 한정->이익의 함은 변하지 않음=ㄴ)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큰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ㄴ,ㄹ이네요.
ㄱ : 다른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그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상대적으로 지출을 더 늘리겠죠.
ㄷ : ㉠이 과도하게 나타나서 사회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면 그 때 발생하는 현상이 사회적 협약이잖아요. 따라서 사회적 협약의 효력이 강하면 ㉡은 감소하겠네요.

22번 : ③

㉠의 간 : 경쟁자와 경쟁자 사이 - ㄴ : 대상 사이의 관계 - b : 부부사이
㉡의 간 : 많게든 적게든 - ㄱ : 선택의 무차별성 - c : 옮든지 그르든지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36번]

33번 : ②[정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없네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을 뿐이지.

①[정의][구분]

->[지성의 탁월함 : 교육 가능<->성품의 탁월함 : 훈련 통해서 습득]이잖아요;

③[정의][구분]

->[올바른 훈련이란]->[강제<->즐거움이 되는 것]으로 '올바른 훈련'의 개념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죠. 또 [성품의 탁월함]->[하는 것<->하고 싶어하는 것]으로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구요.

④[예시]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에서 바로 지워줘야죠.

⑤[묵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실제적인 물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논점과 연결)에 가까워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 때문이다.(=설득력 향상)]이므로 적절하네요.

34번 : ③[인과]

->[다]의 견해를 구체적인 예시로 쉽게 제시한 게 (라)죠. 근거를 (다)에서 잡아야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이 근거네요. [갑돌이->성품 곧고 자신감이 충만->그렇게 하는 데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니까요. [내적인 갈등이 없이(=어려움 없이)]라고 보면 됩니다.

①[사실/특징]

->성품의 탁월함은 습득되는 거. 제 2의 천성이라고 했잖아요;.

②[비교]

->갑돌&병식 모두 주체적 판단에 따라 옳은 일은 한 거죠. 다만 그게 어려웠냐 그렇지 않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④[비교]

->둘 다 옳다는 확신을 갖고 했죠. 다만 타고난 성품에 따라 그게 어려웠냐 아니냐 차이죠.

⑤[비교]

->둘 다 의식하지 않았어요.

35번 : ①[예시][비교]

-><보기>는 [도덕적 행위가 되려면 의지가 필요!->감정, 욕구 성향이 행위의 동기의 영향을 준 건 훌륭한 행위지 도덕적 행위는 아님! 왜?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니까]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일을 하는 데에는 그러한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어려움 없이 올바른 행동을 함->그게 도덕적 행위이고 성품의 탁월함임]이죠. 즉 [의지<->성향, 감정]을 [구분/비교]해줬으면 되네요. [<보기>->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이므로 [의지>성향, 감정]이라는 비판이 나타나면 되고, 따라서 ①이네요.

②[예시][비교]

->그나마 헛갈릴 법한 선지. 근데 <보기>에서 판단의 근거가 없는 내용이죠. "옳은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잖아요. "옳은 행동을 즐겨하더라도 그것은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성향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훌륭한 행동으로 봐야한다" 정도의 비판이 적절하겠죠.

후국일 주간지 입문 1주차 정답&해설

③[예시][비교]

->결과를 중시하는 것 노 상관)

④[예시][비교]

->성품이 얻어지는 것이 필연적인지 아닌지는 <보기>에 내용에 없음.

⑤[예시][비교]

->개소리!

36번 : ⑤

쉽게 말하면 진실이 없는 예의, 즉 가식의 의미가 되겠죠. 그게 “인사치레”잖아. “야 오랜만이다. 밥 한번 먹어야지”이거. ㅇㅇ. 근데 연락 안 함. ㄸ. 나머지 중에 모르는 게 있으시면 꼭 사전 찾아보세요. 제바류ㅠㅠ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42번]

40번 : ②

-> 2문단 [화자는 하나의 상태 앞에 있을 뿐이며, 화자에게는 시간 속에 위치한 현상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무시해야 한다.]에서 확인 가능하죠. 나머지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질문 좋아)

41번 : ④[구분/비교]

->[공시태<->통시태] [구분/비교]하면 돼요. 즉 [공시태 : 공존하는 사항 간의 관계를 말하는 ‘동시성’의 축 시간의 어떠한 개입도 배제된 정적인 언어 상태],[통시태 : 현상 자체+언어학자의 방법론이나 관점인데, 언어의 상태의 이행을 고찰하는 것]임. <보기>보면 [중세 국어 어형 분석->공시태/변화하여 오늘날의->통시태 / 흔적이다-> 통시태]라고 보면 되죠. 따라서 ④은 ‘이전의 ‘ㅂ술’은 중세 국어에서의 ‘공시태’네요. 변화한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통시태지만 여기서는 ‘중세 국어’ 시대에서의 형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 받아가세요. 그냥 심심해서요.

①[구분/비교]

->[현재 언어에서 분석->시간 개입 배제-> 공시태]이므로 적절.

②[구분/비교]

->[그렇지 좁쌀의 ㅂ은 ‘ㅂ술’의 흔적이니까 ‘흔적’이라는 것을 파악하려면 과거와 연결지어 파악하는 ‘통시태’의 연구가 필요.]이므로 적절.

③[구분/비교]

->[어떻게 ~ 되었는지->변화]니까 통시적 연구

⑤[구분/비교]

->[중세 국어 안에서의 분석->시간 개입 배제->공시태]이므로 적절.

42번 : ①[정의][구분/비교]

->[㉠정태 : 정적인 상태,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공시태 :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유념,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언어가 변화하지만 기능이 기치는 것이 아님]임. [날아가는 화살=변화하고 있는 언어=그 중 이동성을 지니는 것=㉡, 정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네음.

②[정의][구분/비교]

->성장이 멈춘다고요? 리얼리? 언어가 변화를 멈춘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③[정의][구분/비교]

->다 맞춰졌을 때->완성된 상태->근데 언어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잖아요.)

④[정의][구분/비교]

->기호와 그것을 전달아서 연주하는 개념과는 상관없죠. 개별 대상과 그러한 대상의 조화와의 연속성이 공시태의 특징이 아니잖아요.

⑤[정의][구분/비교]

->산의 모습은 둘 다 정지해있는데? 개소리죠. 멍멍. 고생했어요. 1주차) ♡